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인터넷) 2025. 1. 13.(월) 16:00 (지면) 2025. 1. 14.(화) 조간 배포 2025. 1. 9.(목) 18:00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정책 과제

1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 ◈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
2 국민·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 ◈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
3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 ◈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 육성 ◈ 정주·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섬 소멸 대응
4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 해양사고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 조성 ◈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 구축
5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제고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❶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 세계 최대 항만(부산항 진해신항) 본격 착공 ■ 美 동부 물류센터 개장(8월)
■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착공(7월) ■ 친환경선박 비중 10% 달성

○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이하 국적 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또한, 물류 및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국적 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물류 경색 발생에 대비 ⇒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물류 지원 선제적 추진
해운시장 불확실성 대비 ⇒ 위기대응펀드 확대(1→2조원) 등 경영 안전판 확충

○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먼저,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 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❷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 상반기 중 할인행사 예산 80% 투입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 착수
■ 전체 어획량의 60%를 TAC로 관리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8월)

○ **수산물 물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여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착공, 3월)과 경북 영덕(설계, 2025)에 조성한다.

○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31.5억 불, 2022년)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社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現중화권 → 개편중동·남미) 등을 추진한다.

❸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개소 선정(上)	■ 10조원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 귀어인 주택단지 90호 조성(~'27)	■ 의료 사각지대 섬 200개소 원격진료 지원

○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하여 연안지역 활력을 높인다.**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약 3.2조원)을 절감한다.

○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여건도 개선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24. 12월부터)와 예매서비스('25. 2분기부터)도 개시한다.

❹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월) ■ 전체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
■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 시범사업 ■ 대형 해양보호구역 2개소 지정

○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 24m → 20m 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 이상)

○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개소)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천㎢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등을 강화한다.

❻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개최(4.28~30) ■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4.30~5.1)
■ UN 해양총회 국내 유치 확정(12월) ■ 제5차 독도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인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26~'30)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120)
		담당자	서기관	김명호 (044-200-5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1

해양수산부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25.下)
  * 하역능력 2배 확대(~'45)
-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영통합('25~)

해외 물류센터 확대

- 美 동부 물류센터 개장('25.8)
- 'K-물류 TF' 구성
- 마스터플랜 수립('25.下)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메탄올 추진 선박 운항('25, HMM 5척)
- '프리미어+MSC' 출범('25.2~) 지원
- 중남미, 대서양 등 수송망 확충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 중소기업 수출입물류 지원
- 위기대응펀드 확대 개편(1→2조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착공('25.7)
- 항만 부지 내 신산업 유치('25)
  * 데이터센터, UAM 등
- 완전 자율운항선박 R&D 착수('25 예타)
-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25.1~)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 친환경선박 신조 정책금융 지원 강화
- 항만 탄소중립 인프라 전략 수립('25)
- 노후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100대, ~'27)
-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수립('25)

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2

해양수산부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상반기 할인행사 집중 지원(전체예산 80%)
- 정부 비축 대상품목 확대 및 공급처 다변화
  * 지역 중소형 마트까지 확대('25)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 중점 관리품목(8종)·수급 예측품목(3→5종) 확대
- 김 외해양식 생산 및 계약재배(시범) 실시
- 타 업종의 김 양식업 전환('25.7~)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신축공사 착수('25.上)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확대
  (60→129개)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 스마트가공단지 조성 착수
- K-Seafood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중기부 협업)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어획량 중심 관리 확대('25, 연근해어획량 60%)
- 어선감척 규모 확대('25, 425척)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25.8)
-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양식장 이전 제도 도입('25)

신규인력 진입 지원

- 청년·기업의 유휴 마을어장
  활용제도 도입('25.上)
- 어선(25척) 및 양식장(20개)
  임대 확대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

- 품목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25.1분기)
  * 김 10억불, 참치 6억불, 굴·전복 1억불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 수출바우처 지원(100개社)
-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중화권→미주·중동)
- 방한관광객 마케팅 신규 실시
-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6천만원)

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3

해양수산부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25.1~)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25.上, 2개소 선정)
-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문체부 협업)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25 예타)

해양문화·교육 확산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下)
-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확대

항만 재개발 신속 추진

-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25.下)
- 인천항 내항 1·8부두 실시계획 수립('25.下)

2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신소재 시장

-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기술개발(~'28, 350억원)
  → 10조원 규모 신시장 선점
- 친환경선박 신소재(고망간강)
  활용범위 확대
  → 3.2조원 규모 로열티 비용 절감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 산업화지원센터 개소(서천, '25.上)
- 기능성 원료화센터 조성(제주, '25, 타당성조사)

3 정주·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섬 소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어촌신활력증진사업('25, 26개소 신규)
- 어촌발전특구 신설('25)
- 청년바다마을 조성('25~, 3개소)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 소외도서 항로 지원(20개)
- 섬 택배비 지원 확대(322→473개)
- 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25, 약 2000여개)

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4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1 해양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대책

-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25.10~)
-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25.下)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여객선 등 선박 안전

-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보급('25, 29척)
- 사고취약선박 집중관리(700척)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기술 고도화
- 무동력 수상기구 음주단속 강화('25.6~, 해경)

2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재해관리체계

- 연안 개발시 침식·침수 영향 사전검토 의무화('25)
- 국민안심해안 조성방안 발표('25.上)

기후변화 대응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제공('25.下)

3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25.下)
- 로봇 활용 부유쓰레기 수거('25.3~)

해양환경 관리체계

-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25, 2개소)
- 신규 블루카본 국제인증 추진(~'27)

폐어구 관리 강화

- 어구보증금제 확대('26)
-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 수산업법 개정('25)
- 감척어선(5척) 활용 상시 수거

4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

- 공유수면 이용현황 조사 강화
- 원상회복 이행관리 강화

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5

해양수산부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1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성공 개최

-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25.4, 부산)
- UN 해양총회('28)의 국내유치 확정('25.12)
  → 글로벌 선도 정책비전 제시 + 해양주도권 확보

국제어업관리 파트너십 강화

- 제4차 한-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25.上)
- 제2차 한-일 지역수산기구관리협의회('25.上)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국내 유치('25)

2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독도의 이용·보전·관리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5차 기본계획 수립('25.下)
- 독도 관련 영상자료 제작·배포

해저 개발·활용

- 심해저활동 지원 위한 국내법 제정 추진 ('25.下)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추진

해양조사 인프라 확대

-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해상설치('25)
- 서해 해양관측부이 추가 설치('25, 2개)

무인도서 관리

-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25.下)
- 도서통계 산정기준 확정('25.下)